

女핸드볼 호주 잡고 세계선수권 결선 진출

“도쿄 올림픽 성화 출발지서 방사선”

17점차 격파... 최종전 결과 상관없이 진출 확정 앞서 프랑스·브라질 등 세계 강호들 연이어 꺾어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제24회 세계선수권대회 결선에 진출했다. 4일 일본 구마모토현 야마가 시립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5일째 조별리그 B조 4차전에서 호주를 34-17로 가뿐히 물리쳤다. 3승 1무가 된 우리나라는 6일 독일과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와 관계 없이 각 조 상위 3개국이 결선리그에 진출. 다시 2개 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치른다. 결선리그 2개 조의 상위 2개 팀이 4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한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프랑스, 브라질 등 세계적인 강호들을 꺾고 덴마크와는 무승부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한 수 아래인 호주를 맞아 전반을 18-10으로 여유 있게 앞서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약했다. 한국은 이날 이미경(부산시설공단)이 5골을 넣었고 류은희(파리 92), 심해인(부산시설공단), 정지인(한국체대)은 나란히 4골씩 터뜨렸다. 호주는 앞서 열린 경기에서 덴마크에 25골, 독일에 26골 차로 졌고 프랑스에는 39골 차로完패한 팀이다. 우리나라는 17골 차로 이겨 앞서 호주를 상대한 나라들만큼 점수 차를 벌리지는 못했지만 선수들을 골

을 정한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프랑스, 브라질 등 세계적인 강호들을 꺾고 덴마크와는 무승부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한 수 아래인 호주를 맞아 전반을 18-10으로 여유 있게 앞서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약했다. 한국은 이날 이미경(부산시설공단)이 5골을 넣었고 류은희(파리 92), 심해인(부산시설공단), 정지인(한국체대)은 나란히 4골씩 터뜨렸다. 호주는 앞서 열린 경기에서 덴마크에 25골, 독일에 26골 차로 졌고 프랑스에는 39골 차로完패한 팀이다. 우리나라는 17골 차로 이겨 앞서 호주를 상대한 나라들만큼 점수 차를 벌리지는 못했지만 선수들을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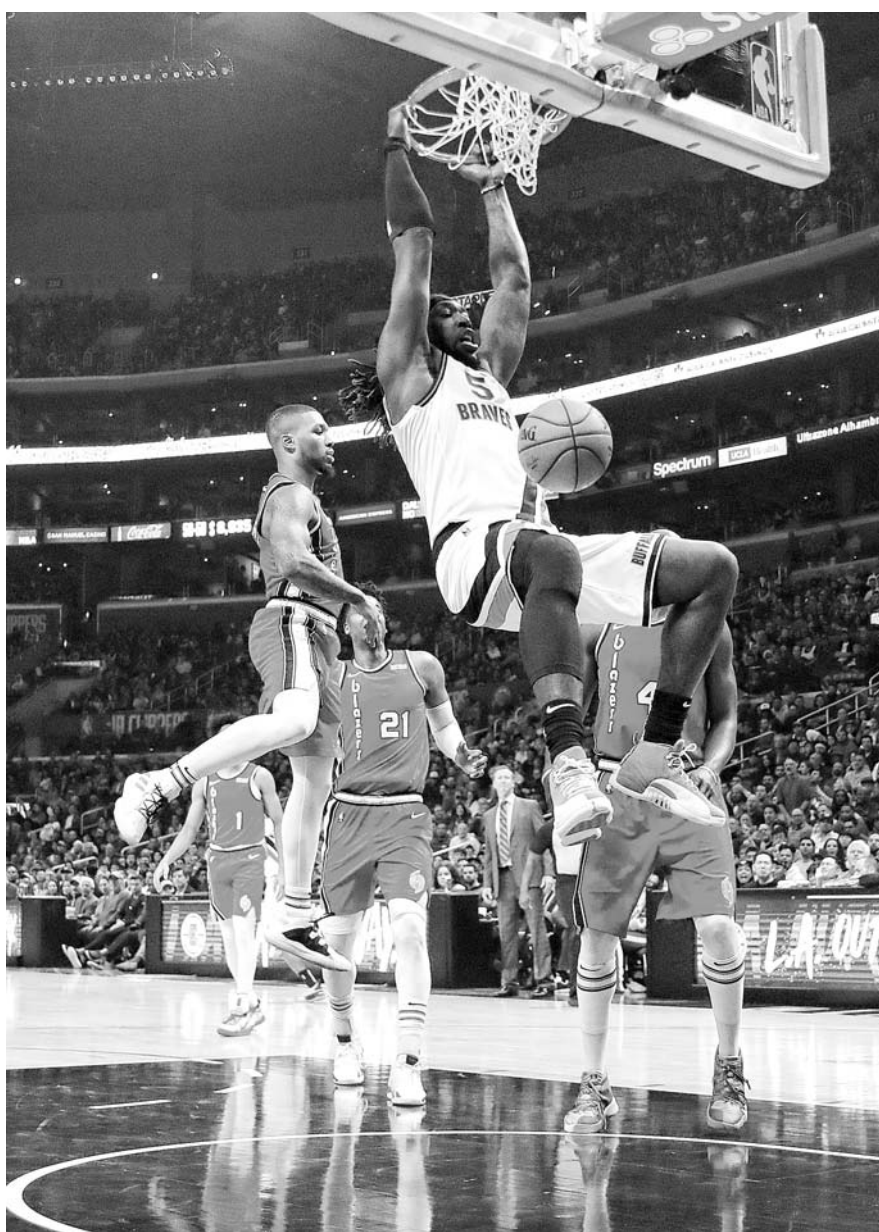


덴마크전에서 슈팅을 던지는 류은희.

연합뉴스

고루 기용하며 6일 독일전을 대비했다. 세계선수권에서 2015년 14위, 2017년 대회 13위에 그친 우리나라는 올해 12강 결선리그에 진출하며 최근 두 차례 대회에 비해 높은 순위

를 확보했다. 한국은 2009년 세계선수권 6위 이후 2011년 11위, 2013년에는 12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덩크슛 작렬 LA 클리퍼스 몬트레졸 해럴이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포틀랜드 트래일블레이저스와 미국프로농구(NBA) 경기 후반전 중 덩크슛을 넣고 있다. 클리퍼스가 117-97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명품 수비수 장슬기 스페인서 뿔다

마드리드 CF 페메니노 입단 국대, 유럽파 선수 4명 보유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의 수비수 장슬기(25·사진)가 스페인 무대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4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WK리그 인천 현대제철에서 뿔던 장슬기는 스페인 여자축구 1부리그인 프리메라 디비시온의 마드리드 CF 페메니노 입단을 확정했다. 장슬기는 연령별 대표팀부터 한국 여자 축구의 주축으로 활약해 온 선수다. 2010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결승전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서 한국의 우승을 결정지었고, 2012·2014년 U-20 여자 월드컵 등에 출전했다.

로 ‘ 멀티 플레이어’ 능력을 갖췄다. 장슬기의 스페인 진출로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엔 잉글랜드에서 뛰는 지소연(첼시), 조소현(웨스트햄), 이금민(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또 한 명의 ‘유럽파’를 보유하게 됐다. 장슬기가 뿔게 될 마드리드 CF 페메니노는 스페인 마드리드를 연고로 2010년 창단한 팀이다. 2013-2014시즌 2부로 강등됐다가 2017-2018시즌 재승격했다. 9월 막을 올린 이번 시즌엔 16개 팀중 12위에 머물러 있다. 부산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여자 축구대표팀에 소집된 장슬기는 대회를 마치고 스페인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그는 축구협회를 통해 “스페인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한국 여자 축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성인 대표로는 프랑스 여자 월드컵을 포함해 60경기에 나서 11골을 기록했다. 2015년 일본 고베 아이낙에 입단한 그는 이듬해부터 현대제철에서 뛰며 WK리그 연속 우승에 힘을 보탬. 지난해엔 대한축구협회 선정 ‘올해의 여자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대표팀에서는 수비수로 활약했지만, 소속팀에서는 공격수로 뛰었을 정도

그린피스 조사결과 발표 “日本政府 作業 실패”



후쿠시마 J빌리지.

연합뉴스

2020 도쿄 올림픽 성화 출발지인 ‘J 빌리지’에서 고선량 방사선이 측정되는 핫스팟을 발견했다고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4일 밝혔다.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를 매년 방문해 방사성 오염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사 대상에 도쿄 올림픽 성화 출발지인 선정된 J 빌리지를 포함했다. J 빌리지는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 시설을 갖춘 훈련 장소다. 후쿠시마 제2 원전에서 20km 떨어진 곳으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거점이었다. 그린피스 방사선 방호 전문가 그룹이 올해 10월 26일 J 빌리지 훈련 시설 주변 지역을 특수 방사능 측정 장비로 조사한 결과 잔디나 나무로 덮여진 지점에서 고선량 방사선이 확인됐다. 특히 경기장 부근 주차장에서는 최대치인 시간당 71µSv(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됐다. 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과 비교해 1천775배 수준이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자연방사선은 0.1~0.3µSv/h이다. 카즈에 슌지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캠페이너는 “J 빌리지는 일본 정부에서 수년간 집중적으로 오염 작업을 해온 지역”이라며 “이런 곳에서 다시 다수의 핫스팟이 발견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오염 작업이 실패했으며 오염 수준이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이번 조사 결과와 즉각적인 오염 작업 및 시민 접근 제한을 강력히 요구하는 서신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청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에게 전달했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린드블럼, 두산 떠난다...MLB 가나

4일 보류권 포기 결정 美·日 프로구단 관심

프로야구 KBO리그 두산베어스가 외국인 투수 조쉬 린드블럼(32)의 보류권을 포기했다.

평가해 보류권을 풀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2019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린드블럼을 잡기 위해 애를 썼다. 지난달 25일 보류 선수 명단에 넣는 등 재계약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린드블럼은 미국 복귀의 뜻을 품고 두산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산은 4일 “린드블럼에게 제계약 의사를 전했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 구단들이 린드블럼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린드블럼이 그동안 공헌한 점을 높게

미국 현지 언론들은 린드블럼의 미국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 린드블럼.

연합뉴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JIBS/SBS, EBS1, and KCTV. Each column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오늘의 운세 5일. A daily fortune-telling section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predicted characteristics for the next five days.